**교제와 나눔**

**ㆍ코로나 봉쇄 연장:** 2월 14일까지

**ㆍ유초등부:** 당분간 매주일 12시 가족예배, 15시에 2부 활동 온라인 진행

**ㆍ청소년부:** 당분간 매주일 14시 자체예배, 15시에 2부 활동 온라인 진행

**ㆍ설 명절:** 2월 12일(금)

**ㆍ재의 수요일:** 2월 17일(수), 이날부터 매일 ***사순절 40일 묵상***시간을 갖겠습니다.

**ㆍ2021 *SNS* KOSTA EUROPE:** ‘마음을 새롭게 하라’*Reboot your Heart* (롬12:2)

2월 26일(금)~27일(토) 19시~22시, 유튜브 검색창에 ‘코스타국제본부’ 검색 클릭

**ㆍ헌금:** 교회구좌로 송금해 주세요.

**ㆍ전번변경:** 김종권 0176-4292 2687

**ㆍ한국방문 및 귀국:** 전소현,박상훈-김명희/박성은

**ㆍ재활치료:** 신형만(Bonn)

**ㆍ생일축하:** 한결, 조세하, 서영지, 민명희

**\*\* 함께 기도합시다 \*\***

1)비대면 예배와 교육부서별 활동이 은혜롭게 운영되게 하소서.

2)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

3)감염된 이들을 고쳐 주시고, 방역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지켜 주소서.

4)스스로를 깊이 돌아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5)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

**◆말씀일기 일정**

일/누가10:1-16 월/누가10:17-24 화/누가10:25-42 수/누가11:1-13

목/누가11:14-26 금/누가11:27-36 토/누가11:37-54 일/누가12:1-12

**◆114 운동-**하루**(1)** 한번**(1)** 말씀일기 & 성경 **(4)**장 통독

**(성경 200독 대행진: 185독, 김영희 권사 1독)**

**◈ 예배위원 안내 ◈**

|  |  |  |  |  |
| --- | --- | --- | --- | --- |
|  | **1월 31일** | **2월 7일** | **2월 14일** | **2월 21일** |
| **예배기도** | 김종권 | 정기승 | 서영지 | 서민규 |
| **말씀일기** | 김경숙 | 이선영 | 김학순 | 조선형 |
| **안내위원** | 예배부 | | | |
| **헌금위원** | 단주현, 박희영 | 박종희, 백윤정 | | |

**38-5호 2021년 1월 31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116:2)

주일예배: 12:00 각 가정에서

유초등부: 12:00 가족예배

15:00 2부 활동

청소년부: 14:00 자체예배

15:00 2부 활동

토요기도회: 07:00 각 가정

선교성경아카데미(MBA): 언제 어디서든

**담임/ 손교훈 목사** Kyo-Hoon Sohn

☏ 02131-5249 186 HP. 0176-5779 1004

**교육/ 김요한 목사** HP. 0176-5574 1290

**교육/ 이영환 전도사** HP. 0163-143 2804

**선교협력/ 이광열 목사** HP. 0157-7388 7498

1983년 5월8일 창립 **뒤셀도르프선교교회**

**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de**

**교회주소Alte-Landstr. 179, 40489** **D****üsseldorf**

**주 일 예 배**

인도: 손교훈 목사

|  |  |  |  |  |
| --- | --- | --- | --- | --- |
| ※입례송/Eingangslied ……………… 왕이신 나의 하나님 …………..…….  ※예배부름/Eingangsgebet ........………………………………………………........................... ……… | 다함께  인도자 | | |  |
| ※찬송/Gemeindelied ……….......................... 38장 ....................................... | | 다함께 |
| ※신앙고백/Glaubensbekenntnis ………………………………………….................. | | 다함께 |
| 성시교독/Wechselwort ………………. 교독문 57번 …………….................. | | 다함께 |
| 찬송/Gemeindelied …………………………. 299장 ………………….……………. | | 다함께 |
| 기도/Gebet …….................…………...................................................…………..............  말씀일기/Bibeltagebuch …………………………………………….............................  찬양/Chor .....….............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 | | 김종권 집사  김경숙 권사  찬 양 대 |
| 성경봉독/Text zur Predigt .……….. 누가6:12-16 …..…....………….….… | | 인 도 자 |
| .설교/Predigt ...….………………..... **예수의 기도III** ………………………… | | 손교훈 목사 |
| 기도/Gebet …........………………………………………………....................................  찬송/Gemeindelied ..….…..….………..…… 364장 …....….…..….…………………  봉헌/Kollekte …………..................................................................................................... | | 설교자  다 함 께  다함께 |
| 교제/Bekanntmachung ……………………….......................................…………............. | | 다함께 |
| ※주기도송/Vaterunser…………………………………………………………………………… | | 다함께 |
| ※축도/Segen ………………………….……………………………………………...................... | | 손교훈 목사 |

**※ 표는 일어섭니다.**

**\*\*교회 구좌\*\***

Ev. Presbyterianische Kirchengemeinde e.V.

Bank: Stadtsparkasse Düsseldorf

IBAN: DE61 3005 0110 1008 4019 01

**◈ 손교훈 목사의 말씀일기 눅9:1-17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3)고 하셨다. 그런데 얼마 후 벳세다 근처 “빈 들”(12)에서 5천 여 명의 끼니를 걱정하는 제자들더러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13) 하신다. 제자들더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또한 그들더러 ‘주라’고 하시니, 사실 이율배반 아닌가?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1)셨다. 그렇다면, 제자의 능력과 권위를 활용하라는 말씀이셨는가? 이것이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신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4복음서 중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공통)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제자들은 돈 주고 사 먹는 길 외에는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도 생각뿐, 실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돈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때 예수께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16)셨다. 나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늘 읽던 방식과는 다르게 읽어 본다.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는,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제자들, 돈 타령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떡과 물고기를 떼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였다.

그렇다. 제자들에게는 애초에 나누어줄 것이 없다. 아니, 나누어 줄 능력이 없다. 있다면 근심과 걱정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먹을 것을 쥐어 주신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신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 오늘 따라 내게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생명의 떡)을 쥐어주마.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는 말씀으로 들려온다. ‘너희가 해결하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했던 말씀을 오늘은 ‘내가 해결해 주마’로 읽어보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 생각하며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내가 성경을 곡해하는 것인지....